

◇악성 중피종의 치료

강정신, 이두연, 김해균, 류승원, 윤용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호흡기센터,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악성 중피종의 치료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확장된 치료방법으로 Multimodality 치료가 제시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악성 중피종에 대한 치료는 발전단계에 있다.

방법 :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는 1994년1월부터 1998년 2월까지 7례의 악성 중피종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 악성 중피종으로 진단된 7례에서 평균나이는 53세[범위 38-72세], 7례 모두에서 남자였으며 2례에서 pleuropneumonectomy 를 시행하였고 5례에서 흉강경을 이용한 생검후 항암치료를 시행하였다. 세포형은 7례 모두에서 epithelial type 이었으며 항암치료를 시행한 5례에서는 모두 8개월이내에 사망하였고 수술한 1례는 수술후 6개월에 사망하였으며 1례는 6개월 추적관찰에서 재발의 소견없이 없이 생존해 있다.

결론 : 악성 중피종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항암치료는 생존에 효과가 없었으며 새로운 약제의 시도와 확장된 수술방법을 포함한 다른 multimodality 치료방법을 찾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책임저자: 김해균(연세대학교) 발표자: 강정신(연세대학교)